



심석희, 동계체전 건너뛴다

오는 19일 개최 쇼트트랙 종목 불참 최종 결정
“휴식 필요한 상황...세계선수권 준비에 집중”

심석희(22·한국체대)가 세계선수권대회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동계체전에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심석희는 19~22일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치러지는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쇼트트랙 종목에 출전 신청을 했지만,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심석희의 매니지먼트사인 갤럭시시이SM 관계자는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고, 세계선수권대회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동계체전을 건너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상승 폭행과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후 마음 고생을 한 심석희는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5, 6차 대회에서 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다.

심석이 지친 가운데 대회를 치른 심석희는 감기 증세가 있어 월드컵 6차 대회 마지막 날 경기를 하지 않았다. 1500m에서 파이널B 출전권을 따냈으나 나서지 않았고, 대회 마지막 날인 10일 1000m, 3000m 계주에도 출전하지 않았다.

다음달 8~10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심석희는 휴식과 세계선수권대회 대비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귀국해 감기 치료를 받은 심석희는 인천선수촌에서 대표팀과 함께 훈련을 이어간다.

심석희 뿐 아니라 남자 대표팀의 임효준(23·고양시청), 황대현(20·한국체대)도 세계선수권대회 대비를 위해 동계체전에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



“아직 강정호에게 큰 기대 걸 수 없다”

현지 언론, 두 시즌 공백 탓

메이저리거 강정호(32·피츠버그 파이리츠)에 대한 냉정한 전망이 나왔다.

피츠버그 현지 매체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12일(한국시간) 피츠버그 타선의 문제점을 짚었다.

피츠버그는 지난해 157홈런을 때려냈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25위에 머물 만큼 파괴력이 약했다. 2017년에는 151홈런(29위)에 그쳤다. 이 매체는 장타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살렸다.

올 시즌 바리크에게 재기를 노리고 있는 강정호에게는 ‘물음표’가 붙었다.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강정호에 대해 “타선에 파워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현재 높은 기대는 할 수 없다. 강정호는 두 시즌을 뛰지 않은 선수”라고 지적했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데뷔 첫 해

인 2015년 15홈런을 때려냈고 2016년에는 21홈런을 터뜨려 중신타자 뛴을 해냈다. 하지만 2016년 12월 한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2017시즌을 통으로 날렸고, 지난해에는 시즌 막판 빅리그 3경기에만 출장할 수 있었다.

강정호가 보여준 기량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하며 ‘감각’을 잃었다는 것은 약점이다. 강정호가 부활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가 주목한 해결사는 조시 벨(33)이다. “젊은 선수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벨은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는 꾸준한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전했다.

내야수 벨은 빅리그 첫 해인 2016년 3홈런, 2017년에는 26홈런을 뽑아내며 잠재력을 드러냈다. 지난해에는 12홈런을 기록했다.

뉴시스

최경주·배상문·김시우, 제네시스오픈 출격 ‘별들의 잔치’

필 미켈슨·타이거 우즈 눈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오픈에 한국 선수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제네시스 오픈은 15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파71·7322야드)에서 개최된다.

1926년 제정된 제네시스 오픈은 현 PGA 투어 대회 중 7번째로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이전 대회는 로스앤젤레스 오픈 노던 트러스트 오픈, 닛산 오픈이라는 대회명으로 열렸다.

최경주(49), 배상문(33), 임성재(21), 강성훈(32), 김시우(24), 김민휘(27), 이태희(35) 등이 세계 톱랭커들과 경쟁하며 우승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는 파 71로 열리는 데, 전장의 거리는 7322야드로 길다. 장타력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환경이다.

피닉스 오픈을 통해 약 8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최경주는 시즌 두 번째 대회에 출격한다. 지난해 부상 이후 어느 정도 컨디션을 끌어올렸는 지가 관건이다.

김시우는 지난해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공동 4위에 올랐다. 여세를 몰아 제네시스오픈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이태희는 지난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우승, 꿈의 대회의 참가권을 얻어냈다.

제네시스 오픈에서 한국(계)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린 선수는 재미동포 제임스 한(한재웅)이다. 무명의 제임스 한은 2015년 깜짝 우승을 차지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케빈 나(나상욱)는 지난해 공동 2위에 올랐고, 2011년 3위에 오른 바 있다. 최경주는 2009년 공동 3위가 이 대회 최고의 성적이다.

지난해 우승자 버바 왓슨(미국)은 대회 2연패이자 네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필 미켈슨(미국) 역시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라이벌 타이거 우즈(미국)는 아직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없다. 지난해 벌인 1대1



대결 이후 3개월 만에 만나는 두 선수의 라이벌 구도도 흥미롭다.

세계랭킹 10위권 선수 중 6명의 스타들이 출전한다. 더스틴 존슨(미국·3위), 저스틴 토머스(미국·4위), 브라이언 디셈보(미국·5위), 존 램(스페인·6위), 잔더 셔벨레(미국·7위), 로리 맥길로이(북아일랜드·9위)가 포진했다.

출전 예정 선수들 중 6명의 선수들이 통산 19승 이상의 PGA 투어 대회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다. 우즈(80승), 미켈슨(44승), 비제이 싱(피지·34승), 데이비스 러브 3세(미국·21승), 어니 엘스(남아공·19승), 존슨(미국·19승) 등이다.

마쓰자카, 사인해주다가 어깨 부상...장기간 이탈

팬에게 사인을 해주다가 다른 팬이 팔을 잡아당겨 오른 어깨 통증을 느낀 일본프로야구 투수 마쓰자카가 다이쇼(39·주니치 드래건스)가 장기간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스포츠, 스포츠호치 등 일본 언론들은 13일 “마쓰자카가 12일 일본 오키나와현의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오른 어깨 염증이 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스포츠호치는 마쓰자카가 개막전에 출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매체들도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마쓰자카는 2015년 여름 오른 어깨 수술을 받았다. 이번에 다친 곳은 수술한 부위와는 다르다.

스프링캠프에서 한창 공을 던지며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어깨를 다친 마쓰자카가 언제 전력 투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케이스포츠는 “캐치볼 계획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마쓰자카가 스프링캠프를 떠나 치료에 전념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K리그, 8년 연속 아시아 1위

세계 최고는 프리메라리가...카타르-중국-일본 순

K리그가 아시아 최고 리그 자리를 8년 연속 지켰다.

프로축구연맹은 12일 국제축구연맹(IFHS)의 자료를 인용, 2018년 세계 프로축구 리그 순위에서 K리그가 전체 19위를 차지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리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1991년부터 세계 프로축구 리그의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한 IFHS는 각국 상위 5개 클럽의 자국 리그, 대륙별 리그 성적을 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K리그는 2018년 순위에서 환산 점수 580점을 획득해 작년보다 9계단 오른 19위로 8년 연속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카타르의 카타르 스타스 리그(420점·39위), 중국의 슈퍼리그(400.5점·44위), 일본의 J리그(388.5점·45위)를 따돌렸다.

한편 2018년도 세계 최고의 리그는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1286점)였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1050점)가 뒤를 이었다.

뉴시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골, 회현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